

特 輯 座 談

70年代 前後를 말하는 韓國의 頭腦

歷代大統領賞受賞 科學者 座談會

場 所 社團 大韓發明協會
法人

日 時 1971年 6月 12日(土)

【參 席 者】

李 範 純 中央大 工大學長 (68年度 大統領賞受賞)
羅 世 振 서울大 醫大 教授 (69年度 大統領賞受賞)
姜 永 善 서울大 文理大 教授 (70年度 大統領賞受賞)
張 世 憲 서울大 文理大 教授 (71年度 大統領賞受賞)
金 善 吉 科學技術處 振興局長
司會 李 賢 植 (發明과 工業) 主幹
記錄 權 宅 住 (發明과 工業) 記者

밝은來日위해 도전한 韓國의 科學技術

▲司會 人事: 1950年代 以後에 展開된 世界의 技術革新過程은 1960年代에 들어와 더욱 促進되고 擴大되어 現代科學技術의 燦然한 金字塔를 쌓았으며, 이에 따른 國際間的 激甚한 科學競爭은 先後進國間的 보다 深刻한 技術隔差의 問題를 惹起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年代에 들어와서 高度成長과 함께 國家的으로 科學技術開發을 推進하여 큰 발전을 이룩 하였습니다. 이제 科學技術界의 큰 榮譽인 歷代 大統領賞 受賞者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지나간 業績을 더듬어보고 그 문제점을 分析하여 科學韓國의 里程碑를 向한 앞으로의 方向에 對하여 말씀하여 보고저 합니다.

▲司會: 科學技術은 經濟開發의 附隨的이며 부분적인 것으로 가치평가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問題를 어떻게 보시지요?

張: 科學技術의 발전과 經濟는 馬車의 두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의 獨

自的 開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姜: 科學技術은 經濟開發의 附隨的인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의 主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過去 우리 民族이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貧困에 혜대인 것은 오로지 科學技術이 뒤떨어진 때문이라는 點을 想起할때 疑心할 여지가 없습니다.

▲羅: 科學기술은 經濟開發의 原動力이며 科學技術의 발전向上없이 經濟開發은 成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經濟開發이 科學技術을 더욱 向上 促進시킬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密接한 關係 위에 병행 발전할수 있는 것입니다.

金: 歷史的으로 科學技術의 革新은 經濟的혁명과 文化의 加速的變革을 가져왔습니다.

英國의 產業革命은 곧 世界의 혁명이 된 것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高度의 科學技術時代에는 경제적 復興과 발전의 기틀은 科學이며 技術입니다. 科學技術은 곧 經濟開發의 水源이며 主된 推進力이라

고 봅니다.

李: 後進國이 後進國인 緣由가 바로 이런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惟獨 우리뿐 아니라, 모든 後進國에 共通된 것입니다.

經濟開發에 있어서 科學技術은 資本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나 또는 形態와 그림자 모양으로 반드시 병행하여야 비로소 그 實效를 거둘수 있는 것입니다. 또 先進國이 先進國인 緣由도 실로 科學技術을 尊重하고 崇尚된데서 온것인바 우리도 後進性을 脫皮하고 先進國의 대열에 接近하려는 祖國近代化作業을 推進함에 있어 經濟建設에 쏟는 精力 못지않게 科學技術을 尊重하고 先進技術을 導入消化하며 다시 自體의 科學技術의 力量을 培養하는데 精力을 쏟아야 할것입니다.

▲司會: 우리나라는 近代의 意味의 科學技術이 개발되기 始作한 時期가 60年代 後半부터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重要한 原因과 動機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張: 解放前에는 日本의 植民地 政策으로 우리가 科學技術 方面의 高等教育施設을 갖출수 없었고 日本人學校에서 教育을 받을 수 없었고 日本人學校에서 教育을 받을 機會도 크게 制約되어서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해방후 비로소 이 방면에 高等教育을 實施할수 있었으나 6·25事變으로 큰 成果를 얻을수 없었습니다. 事變이 끝나고 社會가 安定되면서 正常的 教育이 實施되었고 이때 輩出된 人材들이 자라나서 獨自의 活躍을 할수 있게 된 때가 60年代 後半부터라고 生覺됩니다.

이들 人的資源의 成長과 때를 맞추어 工業化가 시작되었고 少額이나마 政府의 研究補助金의 放出이 始作되어 科學技術의 開發이 加速되었다고 生覺됩니다.

姜: 1945년 以前에는 日本이 우리의 科學技術 發展을 故意로 沮害했으며 解放後는 政治的인 混亂과 6·25動亂으로 科學技術開發을 생각할 餘裕가 없었고, 또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그 뒤에도 당분간은 政治的인 安定을 잡지 못하고 전쟁의 餘毒이 가시지 못한 때문에 科學技術開發을 推進할 餘裕가 없었다고 봅니다.

羅: 우리나라의 近代의 科學技術開發이 늦어

진 것은 오랜 鎖國主義의 政策을 써온 關係및 他國에 隸屬하였던 關係等이며 또 해방후에는 建國後의 政治적 경제적 混亂에 基因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近年에 이르러 開發되기 시작한 것은 政治的經濟的 安定과 科學技術開發에 置重하는 政策을 推進한 結果라하 겠읍니다.

▲金: 60年代에 急速히 進展된 科學技術의 開花는 指導者의 叡智와 勇斷이라고 믿읍니다. 後進國일수록 科學技術에 對한 政府의 助成과 支援이 微弱함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劃期的인 發展이라고 生覺합니다.

▲司會: 69年代에 이룩된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가장 큰 業績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張: 寡聞한 탓으로 잘모르겠으나 아직도 模倣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獨創的인 큰 業績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姜: 先進國의 科學技術을 그대로 模倣해서나마 우리의 日常必需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充當하게 된것이며 한걸음 나아가 一部를 外國에 輸出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外國의 模倣뿐만이 아니라우리 自體의 獨特한 力量을 發揮하여 科學技術의 創意的인 발전을 圖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데는 基礎科學 發展에 상당한 비중을 둘 必要가 있습니다.

羅: 모든 分野에서거의 先進國의 水準에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이큰 業績이라 하겠읍니다. 아직 他를 凌駕하는 獨創的인 成果과 많다 할수 없음이 섭섭합니다. 勿論 이런 業績은 많은, 또 오랜 人的 物的 投資가 있는 後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金: 科學技術 開發의 基盤整備입니다. 科學技術處를 主軸으로 研究開發 投資가 계속 增大된 것은 勿論이러니와 世界의 水準의 韓國科學 技術 研究所가 設立되었고 頭腦의 集中開發을 위한 한국 科學院의 設立, 國防科學院과 韓國開發院등 국제적인 研究所의 設立과 研究환경의 정비 研究 雰圍氣의 조성등은 우리나라가 技術革新을 비대한 礎石으로서의 基盤을 완전히 정비하고 跳躍을 위한 始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司會: 우리나라 科學技術者들의 時代的使命

은 무엇이라고 생覺하십니까?

▲張：우리나라가 繁榮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工業國家로서의 轉換을 꾀하고 있는 現過渡期에서 우리 科學技術者는 앞을 멀리 내다보는 밝은 智慧와 事物을 正視하고 올바르게 받아 들이는 깊은 洞察力을 發揮하여 앞으로 꽃을 피울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礎石이 되어야겠습니다.

▲姜：民族中興의 礎石이 된다는 自負心과 使命感을 갖어야 되겠습니다.

科學技術은 國運을 左右하는 關鍵

▲羅：科學技術者는 더욱 國運을 左右하는 關鍵임을 自任하여 各者分野에서 時急히 先進各國의 水準에 따라 올라가고 나아가 現水準을 凌駕하는 獨創的業積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不斷한 努力이 切實합니다.

▲金：國家와 社會속에 同化된 開拓者로서 近代化되고 福祉화된 國民生活를 主導하는 役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覺합니다.

李：우리나라가 科學技術開發의 初創期에 처해 있으니만큼, 우리나라 科學技術者의 現時點에서의 使命은,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이 메마른 이 땅에 「파이오니아」적 자세로서 爲政者와 企業人으로 하여금 科學技術을 細腦시킴이 第1이고 다음이 產業界에의 奉仕와 後進養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司會：企業의 技術開發活動은 한나라 產業技術의 全般的인 水準向上에 絶對的인 影響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企業의 技術開發 提高方案은 무엇입니까?

張：現在 대부분의 企業은 國家의 過分한 惠澤을 받고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들여와 거의 獨點企業모양 競爭없이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國內는 勿論 國際市場에서 競爭을 하게 된다면 必然的으로 技術開發에 힘을 쓰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企業家들로서 하여금 企業의 興亡이 곧 自己自身の 興亡과 直結된다고 느끼도록 政策面에서 調節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姜：이제 부터는 우리나라의 企業인은 先進技術模倣의 思考를 버리고 技術開發에 힘써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한 研究所 같은 施設을 만드는

데 再投資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는데는 눈 앞의 적은 利益만을 생각지 말고 遠大한 抱負로 事業방침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思料됩니다.

▲羅：企業의 技術開發 提方案은 企業家의 資格, 才質, 經驗등이 適任이며 各分野에 技術陣 充實, 企業의 合理的 運營, 勞資利益 分配에 適節, 企業의 遠視眼의 運營 (近視眼의 運營 止揚) 技術向上을 爲한 不斷의 研究等이라 하겠습니다.

▲金：우리나라 企業은 現在까지 主로 政府의 財政 金融面에서의 支援에 依하여 維持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加熱하는 國際競爭과 高度의 經營戰略을 필요로 하는 產業의 進出에 따라 科學技術開發이 곧 企業의 成敗를 左右하는 要體라고 봅니다.

따라서 企業은 目前의 利益을 排除하고 長期의 發展을 위하여 研究機關과의 協助下하여 技術開發을 推進하고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하여 자체의 要員을 確保하며 技術情報를 適期에 活用하여 漸次的으로 自體 技術開發의 터전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李：一般으로 資本만을 追求하고 技術에 관해서는 거의 掛念하지 않는 것이 後進國企業人의 特性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後進國인 만큼 官이 모름지기 民을 指導부거하여 企業인이 자체에 必要한 技術을 自體에서 開發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不幸히도 우리의 실정은 官이 民못지 않게 技術開發活動에 인식이 부족한 터이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企業의 技術提고 방안을 于先 科學技術人이 官을 움직이게 하고 다음 官이 企業인에게 影響을 미치게 하는 迂廻된 手法이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具體的 方法의 하나로서 經濟科學審議會에 科學技術者를 經濟專門家보다 더 많이 參與시키고 經濟各部에 技術擔當의 次官 또는 次官補라도 두고 科學技術處를 더 強化시키는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企業의 技術開發제고 提置는 輸出進興을 위해서라도 焦眉의 急先務라고 하겠습니다.

司會：先進技術導入의 吸收 活用은 技術 隔差

의 短縮을 위하여 매우 緊要하다고 보나 한편으론 自體 研究 開發과의 調和가 成敗를 左右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는 어떻습니까?

▲張：技術隔差의 短縮을 빨리 하려면 先進技術의 導入은 不可避합니다. 그러나 이 導入된 技術도 時間이 흐르면 뒤떨어진 것이 됨으로 이를 막으려면 同時에 基礎研究 投者를 果敢하게 하며 獨者的인 技術開發에 努力해야 합니다.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研究開發에 보다 많은 豫算策政이 필요하다

姜：先進技術 導入과우리 自體研究開發과의 調和가 極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의 支援이 不可避함으로 政府는 科技處의 科學技術研究開發費 같은데 많은 豫算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羅：先進 技術導入도 現段階에서는 心要하나 自體研究開發이 必要하며 이와의 調和가 技術導入의 成敗, 技術入國의 成果를 左右함은 勿論입니다.

金：先進 技術導入은 단순한 모방으로서 도입이 아니라 創造를 위한 모방의 戰略하에 獨立의 新技術 開發을 創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先進技術을 보다 빨리 導入하는 것도 重要하나 이를 소화하고 吸收할 基礎底力을 培養해야 됩니다.

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目的을 적극적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대학의 研究活動을 強化하고 基礎科學研究센터를 設立하여 戰略的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導入技術은 活用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製作 消化吸收하여 實力을 培養하고 다시 이를 土臺로 企業自體가 研究를 行하여 獨自의 人 實情에 맞는 로칼技術을 開發하는 作業은 後進性 脫皮에 必要不可缺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技術의 導入과 自體開發의 兩者는 相當期間 並行해야 된다고 봅니다. 自體 研究開發은 行하지 않고 다만 導入에만 依存하려는 企業運營의 方式은 技術의 外國隸屬을 永年 免치 못하게 만들게 됨은 勿論 國家의 後進性을 永久히 또한 完全히 脫皮하지 못할 自滅策인 것입니다 餘談이지만 政府에서 技術導入의 慎重性

이 資本導入에 기하는 慎重性보다 疏忽한 느낌이 짙은 것은 나단의 所見은 아닐까 합니다.

司會：大學, 產業界 그리고 科學技術界의 連繫強化方案은 무엇입니까?

張：產業界가 現在와 같은 構造와 體質을 갖고 있는 限은 大學과의 密接한 連繫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大學은 敎育과 관련된 科學技術의 基礎的 研究를 하는 곳으로 實用研究를 할 수는 없습니다. 產業界가 새로운 製品開發과 品質 向上을 위하여 努力을 하게 되고 이에 必要한 基礎的 데이터와 知識을 必要로 하게 되면 이들 사이의 連繫는 저절로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姜：우리나라는 현재대학에 遊休人力이 많이 있음을 고려해서 이들 人材를 產業界나 科學技術界에서 効率的으로 活用할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原子力關係研究所, 農村振興院, 水産振興院같은데를 가보면 우리나라로서는 과분할 정도의 시설과 設備를 가지고 또이를 運營할 豫算도 상당히 있는데 비하여 이들 施設과 豫算을 學術研究와 技術開發에 이용할 人材가 부족한 感이드는 反面 大學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으면서 設備가 부족하며 豫算이 거의 없는 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外國에서와 같이 研究所와 대학을 긴밀하게 連結할 制度만 마련된다면 兩者가 相扶 相助가되어 보다큰 일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大學, 產業界, 科學技術界와의 相互關係

▲羅：大學, 產業界, 科學技術界의 連繫強化는 絕對必要한 것이며 이것은 相互理解와 互惠關係 強化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遠視眼的 見地에서 꾸준한 忍耐와 理解를 가지고 臨해야 할 것입니다.

▲金：大學은 純粹한 眞理探究의 殿堂이며 產業은 利益追求를 基盤으로 社會的 使命을 遂行하여 나가는 것이고 科學技術界는 위의 두가지 目的을 仲裁하여 改良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相互依存하고 善意的 利用者로서 產業은 研究費負擔의 主體가 되고 大學은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면서 새로운 技術革新을 이끌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李：産學協을 意味하는 것인바 현재 우리는 産과 學이 油中水와 다름없이 全然 遊離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兩者가 相合할수 있도록 柔和劑로서 政府의 架橋的 役割이 切實히 要望됩니다. 大學과 科學技術 機關等的 科學技術人을 總網羅하여 産業界에 對한 협조반을 編成 各分野와 提携케 하거나 教授研究院等を 適材適所로 技術顧問에 臨하게 하거나 또는 其他 方途로 産業이 大學과 研究機關을 十分活用 하도록 길을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司會：科學技術開發에 對한 國民의 觀心은 科學技術의 有形的 投資못지 않게 重要하다고 보는데 이의 阻害要因과 認識계고 方案은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張：科學技術者로서 구실을 할수 있을 때까지 修鍊에 요하는 시간과 노력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길고 힘이 드는 데 이에 대한 補償은 우리나라의 現實情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國民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은것 같습니다.

姜：政府는 여러가지 面을 通해 科學技術의 發展과 開發의 중요성을 國民에게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는 데엔 역시 國民學校教育에서부터 科學技術을 중하게 여기는 風潮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生覺됩니다.

그리고 國民 대중을 상대로 하는 모든 매스컴에서 科學에 관한 일을 보다 優位로 다루어 주는 일도 극히 必要합니다.

▲羅：科學技術開發에 對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려면 教育및 大衆에 影響하는 매스컴까지도 生覺하고 生活하는 모든 것이 科學的 思考에서 벗어나져 나가지 않게 해야겠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教科書에서 條理에 벗어나는 科學的으로 믿을수 없는 傳說등을 읽히고 가르치고 하는 등은 避해야 할 것입니다. 또 科學技術開發에 對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려면 國民들 에게 科學技術者가 國家的으로 優待받고 남보다 잘사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科學技術을 憧憬하고 優秀한 者가 많이 科學技術者가 되려고 希望하게 될 것입니다. 科學技術者가 別수없이 事務家들 밑에서 휘돌리고 苦生하고 있는 現況

에서는 國民은 科學技術과 멀어질 것입니다.

金：近代의 의미의 科學技術을 開發하기 시작한 時期가 日淺할 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인 觀心方向이 微弱하기 때문에 매스컴이 선도적 役割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科學技術界나 學界에서도 積極的인 支援과 造成施策을 講究해야 될것입니다.

李：科學技術의 開發은 原來 比較的 多額의 研究費와 長久한 時間이 所要되는바 企業人의 近視眼의 經營方式과 爲政者의 無關心과 技術人의 迫力不足등이 그 阻害要因이라하며 그 認識계고 方案은 官이 率先하여 企業體가 自體研究를 行하도록 補助免稅(免稅制는 기위 어느 程度 制定이 되어 있다) 其他 獎勵策을 講究하며 또 啓蒙도 疎忽히 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司會：70년대 後半에서 80年代初에 걸쳐 우리나라 科學技術이 上似 中進國에 도달하려는 目標로 精進하고 있는데 이의 重要 推進力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張：有能한 靑少年들이 希望과 의욕을 가지고 科學技術界에 投身할수 있도록 고무하여 줄 것과 現在 一線에서 일하고 있는 科學技術者들이 自己의 달은 분야에서 全能力을 發揮할수 있도록 政策的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目標達成의 推進力이 될 것입니다.

姜：政府의 施策과 이에 대한 國民의 呼應에 있다고 봅니다.

數百, 數千의 運動選手의 海外遠征에는 絶對的인 支援을 하면서 단 한명 혹은 두명의 國際, 學術, 會議參席에는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政府의 施策은 앞으로 是正돼야 한다고 봅니다.

▲羅：科學技術者의 國家的 企劃하의 先進, 各國 留學의 獎勵, 友誼, 研究援助, 研究獎勵, 優秀科學徒의 海外 流出防止等이라고 본다.

▲金：우리나라는 其間 經濟的인 發展과 더불어 社會가 安定된 成長을 持續함으로써 70年代에는 中進國의 上位圈에 到達하고 西紀 2,000年代에는 世界一流 水準에 到達할 것을 바라는데 조금도 疑心을 품지 않습니다. 그것은 自然資源의 貧弱과 經濟的 量的限定을 克服할 수 있는 科學技術의 革新이 뒷받침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優秀한 人力資源과 60年代에 마련한 科學技術의 基盤을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科學技術時代로 進入함으로써 經濟는 더욱 擴充되고 世界市場을 積極 開拓하여 民族의 矜持를 世界에 傳할 것입니다.

科學技術에 대한 關心도가 높아야

李: 이 重要推進力은 爲政者들의 科學技術에 對한 觀心도가 더커져서 研究開發技資를 果敢하게 多額策定하는 率先垂範이 가장 重要하다고 봅니다.

司會: 科學技術界에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張: 눈앞의 利益과 補償만을 追求하지 말고 科學技術을 처음으로 이나라에 導入하여 國家發展에 寄與한다는 使命感과 혈벗은 산에 後孫을 爲하여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專攻分野에 獻身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姜: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제부터는 外國의 科學技術模倣에서 벗어나 우리의 獨自의 科學技術을 樹立해야 되겠는데, 그러는데는 基礎科學의 發展이 必須條件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을 沙上樓閣으로 만들지 말고 튼튼한 土臺위에 盤石같이 만들어 놓도록 하는 것이나의 所望입니다.

羅: 科學技術者의 優待, 海外流出防止(強制로 防止하는 것이 아니고 自意로 流出안하게 하

는 것을 말함) 科學研究費와 援助, 大學施設의 擴充, 대학의 各學科別 經常費支出(講座 經常費)等等

▲金: 謙虛한 마음과 活達한 氣象으로 國家나 社會 그리고 科學技術界가 다같이 精進할것을 바랍니다.

▲李: 科學技術人의 天性이 지나치게 消極的인것 같습니다. 좀더 霸氣있게 活動하여 爲政者를 說得시키고 國論을 正립시키고 不遠將來에는 科學技術의 外國依存내지 模倣을 止揭하고 우리나라 固有또는 特色있는 科學技術을 研究開發하여 外國에 이를 輸出시키는 데까지 奮發할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司會: 지금까지 여러분은 科學에 關한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우리나라 發明界의 現況과 發明에 對한 國民의 關心도에 對하여 科學者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李: 科學이나 發明이나 共通性에 直結된 것이므로 따로이 두드러지게 나눌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리 國民들은 科學發明에 대한 關心이 적다고 보며 그보다 公業소유권 問題等에 있어는 더구나 無關心 하더군요. 우리는 先進國과 같이 많은 工業所有權을 確保하므로써 產業競爭에 勝利할수 있음은 再論이 不要입니다.

一般: 우리도 다같은 意見입니다.

司會: 감사합니다. 時間도 오렸고 이상으로 座談會를 끝 마치고겠습니다.